



의정부주보

• 발행인 이기현 • 편집 홍보국 •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• 전화 031-850-1400(대표), 1433-5(홍보국)

103위 성인

성녀 박봉손 막달레나 (1796-1839)

서울에서 태어난 박봉손은 15세 즈음 시골로 출가하였다. 거기서 딸 하나를 두었는데, 남편과 시부모를 차례로 여윈 뒤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. 이후, 계모 김 체칠리아의 권고와 가르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. 친정에는 여러 교우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 늘 번잡하였으나, 그런 가운데서도 궂은일과 천한 일을 도맡아 하였다.

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박봉손은 외삼촌과 함께 체포되었다. 그는 형관에게 “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여기까지 온 것이니 국법대로 죽여 주십시오.” 하고 청하였다. 마침내 그해 9월 26일,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. 그의 나이 44세였다.

성화_이정태 작, 「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」 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, 2023



연중 제32주일 · 평신도 주일

입당송 시편 88(87),3 참조
주님,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.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.

제1독서 지혜 6,12-16

화답송 시편 63(62),2,3-4,5-6,7-8(◎2c 참조)

◎ **주님, 저의 하느님,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**

○ 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느님.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.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,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. ◎

○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,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.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,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◎

○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,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.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,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 ◎

○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,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.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,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. ◎

제2독서 1테살 4,13-18〈또는 4,13-14〉

복음 환호송 마태 24,42.44 참조

◎ **알렐루야.**

○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.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. ◎

복음 마태 25,1-13

영성체송 시편 23(22),1-2

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.

소리 주보 ▶

